

## 청렴/CS 표어 및 슬로건 공모행사 개최

- '12년도 청렴/CS 최우수 소속을 향한 도전 -

충청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5일 '12년도 청렴 및 CS 향상을 위한 표어/슬로건 공모행사를 개최,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본부는 지난 3.19~3.23일에 걸쳐 전 직원 대상 공모 행사를 가졌으며, 총147건(청렴분야 110건,CS분야 37건)이 접수되었다. 1차, 2차 심사를 거쳐 청렴/CS분야 최우수 1명, 우수 2명 등 6명을 선정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참여상 2명을 별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은 "마음모아 청렴실천 함께 웃는 고객만족"(청렴), "고객은 믿음으로 공단은 실천으로"(CS) 등이 선정되었으며, 총4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김계웅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직원의 동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1분기 우리 본부 청렴도 및 CS만족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 처리시 긍정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는 충청본부 제2차 통합 실행위 및 4월 열린마당 행사에 맞

추어 시행하였으며 1분기 청렴/CS평가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특별교육도 실시하였다. 선정된 표어/슬로건은 기념품, 민원 봉투 제작 및 행사시 홍보용으로 이용할 것이고 스티커로 제작하여 출입문에 부착 할 것이다.

충청본부는 지난 1월 공단 자체 외부 청렴도조사 최하위 소속에서 1분기 조사 결과 우수 소속으로 도약 하였고, 지금은 최우수 소속을 향하여 계속 도전하고 있다.

(충청본부 김건조 기자)



## 『2012년 영남본부 직원 워크숍』 시행

- 12억원 수익창출과 24건의 업무개선 효과 거둬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본부장 등 직원 약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간 의사소통 및 가족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 등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영남본부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7일, 3월 23일, 3월 28일 등 3회로 나누어 직장 동료간 서로 신뢰하는 기업문화 조성, 함께 토론하고 발전하는 본부내 분위기 창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화하자는 세가지 테마를 주 내용으로 발표 및 열린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부서간 벽 허물기 및 토론문화 활성화의 서막을 여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9건으로, 발표는 부장 12명, 차장 12명, 과장 9명, 대리이하 5명 등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수직직원이 참여 하였으며, 토론회 결과 93억원의 사업비 절감과 12억원의 수익창출과 24건의 업무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이태균 본부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안과제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발표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명하였으며, 발표한 과제 중 우수과제는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발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

선방안은 없는 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여 영남본부와 더 나아가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영남본부 직원이 앞장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자유로운 토론으로 조직문화개선 등에 기여하는 좋은 장이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영남본부는 본부내 상·하간 열린 대화를 통해 직원간 신뢰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기업문화 창출로 확대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계시판

### 주요뉴스 (3. 30 ~ 4. 7)

- 광주발 KTX 산천 시스템 고장 30분간 운행 중단 (국민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광남일보 3. 30)
- 내일 전 세계 동시 '전등 끄는 날' 소나무 63만 그루 심는 효과 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대전일보 3. 30)
- GTX,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 (경기일보 3. 30)
- 철도공단 충청본부 철도 유휴부지 민간 확대 (충청투데이 3. 30)
- 철도공단 금유부지 6천여 감소 (중도일보 3. 30)
- 울산 KTX역 테마파크로 (조선일보 3. 30)
- 여수박람회 '특별교통대책본부' 발족 (전남일보, 광주일보 3. 30)
- 철도공단 공채 고졸 25%채용(서울신문 3. 31)
- 도시철도 투신 급증...스크린도어 언제(국제일보 3. 31)
- 김해 '진례교 아차교' 토목구조물 금상(동아일보 4. 2)
- 두산건설 신분당선 지하철구조물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 받아(서울경제 4. 2)
- 철도공단 사원 공개채용(중도일보, 충청투데이 4. 2)
- 또 뭉치 선 KTX 안전불감증 언제까지(광주일보 4. 2)
- 용인경전철 개통 초 위기(경인일보 4. 2)
- 철도시설공단, 임직원 청렴결의 대회(충청투데이, 대전일보 4. 3)
- 원주~강릉 복선전철 지역업체 지원율 상향 요청(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4. 3)
- 수도권전철 '복정주역 신설' 설득력 있다(충청투데이 4. 3)
- "GTX건설·지하철연장" 도내 후보들 철도공약 전쟁(경기일보 4. 3)
- 정부-공기업 부채 첫 800조 돌파(동아일보 4. 3)
- 北 나진~러 하산 철도 10월 재개통(서울신문 4. 3)
- "원주~강릉 철도는 평창 덕분에 조기 착공"(조선일보 4. 4)
- 원주~강릉 복선전철 내달 말 착공(강원일보 4. 4)
- 철도공단 사업참여 기준 낮춰다(중도일보 4. 4)
- 원주~강릉 철도, 지역업체 참여 20% 이상(강원일보 4. 4)
- 원주~강릉 복선전철 5개 공구 우선 착공(서울신문 4. 4)
- 중앙선 운문차량사업소 개소(경인일보 4. 4)
-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강원일보 4. 4)
- 부산,광주서 KTX 타고 인천공항 간다(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4. 5)
- 용산~여수엑스포 열차 빨라져(중도일보 4. 5)
-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6~10공구 용지 매수 착수 (강원도민일보 4. 5)
- 복선전철구간 토지 보상가 낮다(강원일보 4. 5)
- 재출발하려는 강매역 다시 멈춰(동아일보 4. 6)
- 부산·광주 KTX 타고 환승 없이 인천공항 간다(서울신문 4. 6)
-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엄격 평가"(세계일보 4. 6)
- 설계심의 비리업체, 최대2년 턴키 입찰 못한다(한국경제, 대전일보 4. 6)
- KTX 전선 도둑 '각정 뚝'(국제일보 4. 6)
- 철도시설공사 배선선로 알루미늄 케이블로 교체(대전일보 4. 6)
- 국토부 공기업들 '청렴경영' 고삐 죄다(파이낸셜 4. 6)
- 비행기·기차·버스 이용 가능 뱃길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국민일보 4. 6)
- 사실상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에 불똥(한국경제 4. 6)
- 국토부 철도 안전체계 손질(강원일보 4. 7)
- 개통 앞둔 영동선 동 백산역~도계역(강원일보 4. 7)
- 비리업체 2년간 턴키공사 수주 금지(강원일보 4. 7)
- 코레일 중대 열차 사고 내면 국토부, 선로 사용자 더 몰린다(서울경제 4. 7)

경주사

- 국방대학교 파견 노병국차장 모친상 - 발인: 2012년 4월 9일(월)
- 영남본부 건설처 박성용과장 부친상 - 발인: 2012년 4월 9일(월)
-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 태성식사원 조모상 - 발인: 2012년 4월 3일(화)
- 충청본부 최광주 과장 결혼 - 일시: 2012년 4월 15일(일) 오전 11시 - 장소: 유성컨벤션웨딩 2층 펠리시홀
- 호남본부 건설처 김선기대리 결혼 - 일시: 2012년 4월 15일(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정읍시웨딩홀 3층 크리스탈홀
- 충청본부 최광주 과장 결혼 - 일시: 2012년 4월 8일(일)

## 영남본부, '공생의 나무 심기' 앞장서

- 5일 철도변 인근 유휴부지에 왕벚나무 등 5백여 그루 식재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제67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5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철도유휴부지 2,000m²에 왕벚나무, 산벚나무, 잣나무 등 5백여 그루를 심는 '공생의 나무 심기' 행사를 시행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공단은 2004년 창립 이래 지난 8년간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왔는데, 이번 식목행사는 철도공단 영남본부 직원과 동해남부선 1~3공구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상생의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이태균 본부장은 "철도 유휴부지를 찾아 나무를 심고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쾌적한 차창 밖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도변 식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남본부는 협력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 실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 호남본부, '청렴캠페인' 실시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제67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5일 임영록 본부장 등 50여명이 순천시 조곡동 광양삼거리 철도부지에 장미 400여 그루를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미가 심어진 광양삼거리 철도부지는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으로 그동안 철도시설 보호용 울타리만 설치되어 환경미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번 장미꽃나무 식재를 통해 인근 시민공원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이곳을 찾는 발길이 더 늘어남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생발전하는 공단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목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은 동천(東川)으로 이동하여 천변에서 쓰레기 줍기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윤리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결의를 다졌다.

